

“자기 부처 찾아라” 육성 들리는듯...



◇사굴산문의 맥을 이은 보현사 만발보전에서의 참선 정진.

구산선문 참전기행

기 행단이 먼저 찾은 곳은 강릉 정동진에 자리잡은 등명낙가사(주지 청우)였다. 새벽 3시에 도착, 어둠이 짙은 등명낙가사의 일주문 앞에서 회부연 등해 바다를 바라보며 듣는 도량석 목탁소리와 만물을 깨우는 사물의 청정한 법음은 속세에서 묻혀 먼지를 말끔히 씻어 내리기에 충분했다.

사굴산문(沙骨山門)의 중심지인 굴산사(窟山寺)터를 바로 찾아가지 않고 이곳을 찾은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곳이 구산선문의 역사처럼 끊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

6월 1사굴산문

차지하고 있었다.

법일국사의 탄생지라고 전해 내려 오는 마을 가운데 위치한 석천, 법일국사의 부도로 알려져 있는 뒷동산의 굴산사지부도탑(높이 2.05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높이 5.4m)를 자랑하는 당간지주, 동굴과 긴 안면 골격과 광면적인 신체 등 구상적인 표현이 현대미술풍을 연상케 하는 석불좌상 등이 마을은·밭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어 통일신라시대의 웅대하고도 힘찬 기상, 소박한 자연주의 미를 드러내며 당시 선문의 규모를 짐작케 했다. 굴산사터가 마을로 변한 것은 아마

마을 전체가 절터인듯 성보 산재 제자 낭원스님 보현사에서 맥이어 주민들 개산조 국사신으로 받들어

는 불교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람이었기 때문이다. 승유역불 징책을 펴던 조선왕조는 경복궁의 정동(正東)에 위치한 등명낙가사를 없애면 동서남북의 사물이 모두 사라질 것으로 믿고 절을 없앴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젊은 조선왕조 5백년의 침묵을 달고 1956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경덕스님에 의해 호국불일기인 나한도량으로 되살아났다.

기행단은 이어 사굴산문의 본산인 굴산사를 찾았다. 하지만 굴산사터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강릉시 구정면 화산리 마을 전체가 굴산사터를

창건 설화와도 연관이 있는 듯하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사굴산문의 개창자인 법일(810~889) 국사는 당나라에 유학했을 때 영주 개국사에서 원통 귀가 떨어져 나간 한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은 신라인으로서 법일국사가 귀하거든 자신의 집을 지어줄 것을 간청했다. 귀국 후 법일국사가 그의 청에 따라 그가 고향이라 일러 준 곳, 바로 사굴산 아래에 굴산사를 지은 것이 사굴산문을 진작시킨 계기였다고 한다. 사굴산문이 사라진 뒤에도 이곳은 집 짓기에 좋은 땅이었는가 보다.

‘평소의 마음이 곧 도(平常心是道)’

라고 강조한 법일국사의 가르침에서 특이한 것은 유명한 ‘진귀조사설(眞歸祖師說)’이다. 진성여왕이 불교의 선(禪)과 교(敎)의 뜻을 묻는데 대한 답 중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친 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그 뒤 진귀조사를 만나 무상정등정각을 얻은 것이 바로 조사선(祖師禪)의 경지다”고 설해 여래선(如來禪) 보다 우월한 조사선을 주장한 것이다.

이날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임호민 연구원의 항토사를 가미한 안내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됐다. 굴산사터가 화산리 마을로 변했듯이 법일국사 역시 오늘날 이곳 주민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것이었다. 1800년대 이후 법일국사는 강릉 단오제(무형문화재 13호)의 주신인 ‘대관령 국사 성황신(國師城隍神)’으로 모셔지고 있었다. 스님의 높은 덕을 사모한 이곳 주민들이 수백년의 억불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를 사모해 국사신으로 받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하늘을 찌르던 선풍도 영적·신의·개성스님 등 제자시대 이후에는 고려태조의 후원을 입은 보현사도 그 유혼을 넘겨야 했다. 법일의 법을 전해 받은 낭원 개형(854~930)스님은 보현사에 지장선원을 세우고 사굴산문의 전통을 이어갔다. 이후 사굴산문의 맥은 보현사를 통해 현재까지 내려오고 있다.

강릉에서 10km 떨어진 만월산 깊은 계곡에 자리잡은 보현사에는 낭원대사 부도(보물 191호)와 계곡 곳곳에 서린 용맹정진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 사굴산문의 열정인 선기(禪跡)를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발산하고 있었다.

“일 뒤 사람을 바라보고 돌아볼 것도, 더 이상 닦고 얻을 바도 없는 본래 부처로서의 철두철미한 자기 본분의 자각을 수행의 목표로 삼으라.”

사굴산문을 떠나는 참가자들의 귀에 수행자의 본분에 대한 법일국사의 말씀이 들리는 듯 하다.

글=김재경 기자(jkim@buddhapia.com)
사진=고영태 기자(ygo@buddhapia.com)

개산조 법일국사 평상심이 도란 말에 깨우쳐

취가 법일(梵日), 품일(品日), 성은 김(金), 계림의 관족(冠族) 출신이었다. 810년(현덕왕 2) 1월 10일 어머니의 태중에서 13개월만에 나발정주(螺髻頂珠)의 특이한 상을 갖고 태어났다. 824년 15세에 출가하여 831년(흥덕왕 6) 왕자 김의종을 따라 당나라로 갔다. 선사 염관 재인(鹽官 齊安)으로부터 “참오 동국의 보살이다”는 칭찬을 듣고 8년간 그의 문하에서 정진했으며, “평상심이 곧 도”라는 말에 크게 깨쳤다. 뒤에 약산(藥山)의 선사 유엄(惟嚴)을 찾아가 도를 묻고 천하를 주유하였다. 844년 법난을 만나 곤경을 피해 산상(山相)에 가서 육조스님의 탑에 참배한 뒤 847년(문성왕 8) 귀국했다.

850년 백담산에서 정진하다가 명주 도독 김공(金公)의 청으로 강릉 사굴사(窟山寺)를 세우고 통공을 크게 떨쳤다. 경문왕, 현감왕, 정감왕 등의 귀의를 받았으며, 이 왕들이 국사로 칭영양내 끝내 거절하고 40여년 동안 절에서 머물면서 교화를 계속해 사굴산문의 개조가 되었다.

889년(진성왕 3) 5월 1일 사굴사에서 세수 80, 법랍 65년으로 입적했다. 시호를 통효(通孝)국사, 탑호를 연취(延趣)라고 했다.

등명낙가사 자장율사 창건... '수중보궁' 전설

강원도 태백산맥의 경동에 위치한 이 절은 1300여년전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이다. 처음엔 수다사(水多寺)라고 했으며, 고려 초기에 등명사(燈明寺)로 개명했다.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에 바다 건너 왜적을 막고자 수중보궁을 모셨다고 하나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절은 옛 등명사터에 1956년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경덕스님이 새로 지은 것이다. 선덕여왕 때 창건했다는 아담한 오층석탑(강원도 유형문화재 37호)이 눈길을 끌며, 오백나한전이라 불리우는 영산전에는 유근형씨가 상감기법으로 제작한 상감자 오백나한이 봉안돼 있다.

보현사 보현보살이 점지한 나한도량

신라 때 천축국에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강릉 동남쪽 남항진 해변에 문수사(지금의 한송사)를 세웠다. 이때 보현보살은 “한 팔에 두 보살이 함께 있을 수 없다”며 시위를 당겨 화살이 떨어진 곳에 보현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나한도량으로도 유명한 보현사는 913년(신덕왕 2) 낭원 개형(朗圓 開南)스님이 크게 중창하고, 지장선원을 열어 진국의 화승들을 가르쳤다. 1904년 중건 이후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보전과 영산전 삼성각, 만월당, 범종각, 요사채가 있다. 1904년 중건된 대웅보전에는 청나라 사람의 옷차림과 모자를 쓰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의 신중상(神衆像)이 특이하다. 문화재로는 940년(고려 태조 23)에 세운 낭원대사오진탑과 낭원대사오진탑비(보물 192호)가 있다.



◇관동대 영동문화연구소 임호민 책임연구원의 안내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굴산사지 당간지주(보물 86호)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기행단.



◇법일국사의 탄생지로 전해지는 석천(石泉). 그 앞에 있는 것이 머리없는 석불좌상(강원도 문화재자료 38호)이다.



◇굴산사지 부도탑(보물 86호). 법일국사의 부도라고 전해져 온다.

부다피아 쇼핑몰 여름 선물 특선

부다피아 티셔츠

불교 전통창살문양 손수건

-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컬러)
- 가격: ₩5,0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 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굴산사 대웅전	대웅사 대웅전	봉은사 대웅전
봉곡사 대웅전	문해사 대웅전	상제사 대웅전
신흥사 극락보전	신흥사 극락보전	중심사 대웅전

기도포

- 크기: 84cm x 39cm
- 가격: ₩1,600

기도포 100장, 다포 200장 주문시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다포

- 크기: 50cm x 39cm
- 가격: ₩800

현상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포 함께 파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뉘십니다.

장보살, 석가모니, 판세응보살

현상공덕향은 외형이 원추형으로 금속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정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 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자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걸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와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가격: ₩8,000(3개) ₩21,000
- 재조원: 순채통 ■ 판매원: 물·부다피아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컬러)
- 가격: ₩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 전화: 02-732-1522/737-8881
- 팩스: 02-737-0697
- 인터넷: http://mall.buddhapia.co.kr